

【특 집】

해석된 ‘만주’

-동양사에서 본 만주의 의미-

박 선 영*

【 차 례 】

- I. 서론: 만주의 의미
- II. 담론으로서의 만주
- III. 민족주의적 공간으로의 만주
- IV. 동아시아 민족 이산과 융합의 다원적 공간으로서의 만주
- V. 갈등과 질서변동의 발원지로서의 만주
- VI. ‘관행’으로서의 만주
- VII. 결론

국문초록

만주의 다양한 면모는 만주의 특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중국 역사인가, 동아시아사인가, 아니면 만주의 역사인가? 물론 만주는 전통시대부터 현대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만주가 경험하는 시대적 특성에 따라 만주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신청사 담론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동안 만주의 공간성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민족주의적 공간, 동아시아 민족 이산과 융합의 공간, 질서변동의 발원지뿐 아니라 만주에서의 ‘관행’이라는 차원에서도 해석되는 만주의 면모를 추적하였다.

주제어: 만주, 이산과 융합, 질서변동, 관행, 아시아 발칸, 균형의 중심지

*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I. 서론: 만주의 의미

만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만주는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었는가? 요동반도 할양과 반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하여 러일 제국주의가 만주를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던 다양한 역사적 키워드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만주는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전략적 거점¹⁾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반드시 쟁취해야 할 지역(兵家必爭之地)’²⁾이었다. 국제적 모순의 초점이며 아시아의 발칸으로 미래 동방 균형의 중심이기도 하다.³⁾

만주는 전통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교통로일 뿐만 아니라⁴⁾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교통로서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이 격렬한 지역이었다.⁵⁾ 러시아의 동청철도 건설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도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산업화에 유리한 역할을 하여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을 접목시킬 수 있었다.⁶⁾ 만주는 교통로의 중심지였던 관계로 열강들의 각축장이었기 때문에 ‘세계 위험 지대’이자 ‘변동의 핵’이라 규정되었다. 이러한 교통로의 발전은 만주 지역 사회경제에 근본적인 변혁을 초래하였다.

또한 만주는 경제적 보고이기도 하였기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기에 청조가 이민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경을 장악하는 정책(移民實邊政策)을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의 적극적인 만주 건설로 주변 지역으로

1) 조명철, 2004, 「러일전쟁기 일본 육군의 만주전략」, 『군사』 51; 윤취탁, 2005, 「中國의 「東北工程」과 韓半島 「방어적 전략」인가, 「공세적 전략」인가?」, 『만주연구』 2; 박영준, 2004, 「러일전쟁 직후 일본 해군의 국가구상과 군사전략론: 사토 테츠타로(佐藤鐵太郎)」, 『帝國國防史論』(1908)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1; 박창희, 2010, 「동북아의 “지전략적 핵심공간”과 근대 일본의 현상대전: 공격방어이론의 “지리” 요인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3(2).

2) 于斌, 1957, 「東北與世界大戰問題」, 王大任主編, 『東北研究論集』 1,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1쪽.

3) 王德溥, 1957, 「東北問題의再檢討」, 王大任主編, 위의책, 8쪽.

4) 박장배, 2016, 「19세기 한·중 교통로와 중간 핵심거점 심양의 역할 변화」, 『만주연구』 22.

5) 김지환, 2015, 「만주 간선철도망 형성의 역사적 회고」, 『만주연구』 20.

6) 윤명미, 2005,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배경과 과정 및 개발정책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5-2; 장은주, 2011, 「위폐의 만주 정책과 영-일의 대응(1896-1902): 철도 건설을 둘러싼 열강의 이해대립을 중심으로」, 『서양사학연구』 24; Hsu Chia Yin, 2006, “The Chinese Eastern Railroad and the making of Russian imperial orders in the Far East,” Dissertation of New York University.

부터 행복한 미래를 꿈꾸려는 목적을 갖고 이주민이 모여든 공간이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공정(工程)'이나 '항목(項目)'이라는 이름으로 내지와 변경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동북(만주), 서북(신강), 서남(티벳), 북부(몽골) 및 해강(海疆)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청사공정(淸史工程)'⁷⁾을 통해 '한화된 만주족 청사(淸史)' 혹은 '중화민족인 만주족의 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만주족의 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신청사'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러시아의 동방정책으로 본 만주나 서양 열강의 세계 전략으로서의 만주 정책, 일본의 '만선사관' '만몽사관' 및 조선총독부의 '만선일여', 한국의 만주 고토 의식 등은 만주를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만주에 대해서는 만주라는 지역적 특성이나 시대에 따른 각종 사안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괴뢰국 혹은 근대국가로서의 만주국에 대한 연구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개별 주제에 대한 고찰보다는 역사학계에서 그동안 만주를 어떻게 해석하였는지에 대해 특히 만주라는 공간성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이에 대해 담론으로서의 만주, 민족주의적 공간 해석으로서의 만주, 동아시아 민족 이산과 융합의 다원적 공간으로서의 만주, 갈등과 질서변동의 발원지로서의 만주, '관행'으로서의 만주로 나누어 만주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향후 만주 연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 첨언하고자 한다.

II. 담론으로서의 만주

1990년대 이래 미국에서 청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주제를 새롭게 연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를 '신청사(New Qing History)'로 포괄하면서 '신청사' 담론이 형성되었다.⁸⁾

7) 정혜중 외, 2009,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허혜윤, 「청사공정의 배경과 현황」, 『중국근현대사연구』 42.

신청사의 연구 내용은 만주라는 지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사는 청나라 통치자였던 만주족 즉, '만주족의 중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정복 왕조가 자발적으로 중국의 방식을 따른다는 한화(sinicization)로 역사를 설명해 왔다. 그러나 청조를 한화의 개념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만주족이 통치한 중국을 이해함과 더불어 청 제국 그 자체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비록 신청사에서 추구하는 내용과는 일정 정도 괴리가 있지만 본고에서 신청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만주족의 만주'⁹⁾로 만주족이 통치한 청조에 대해 새롭게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만주지역에서 출발한 만주족의 정체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대변된다고 하겠다. 로스키¹⁰⁾는 만주제국이 중국을 통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만주족의 정체성으로 보았다. 마크 엘리엇¹¹⁾은 청 제국의 근간인 팔기제도를 통해 민족적 정체성과 민족 주권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보면서 만주족의 제국이 바로 청제국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크로슬리¹²⁾

8) Zhao Ma, 2008, "Research Trends in Asia: 'Writing History during a prosperous Age': The New Qing History Project," *Late Imperial China* 29-1; Mao, Liping & Ma, Zhao, 2012, "Writing History in the Digital Age: The New Qing History Project and the Digitization of Qing Archives," *History Compass* 10(5); Ruth W. Dunnell and James A. Millward, 2004, "Introduction," James A. Millward et al. eds., *New Qing Imperial History*, Routledge; Joanna Waley-Cohen, 2004, "The New Qing History," *Radical History Review* 88, winter; 윤영인, 2006, 「만주족의 정체성과 청대사연구」, 『만주연구』 5; 마크·엘리엇(Mark C. Elliott), 2008, 「ヨーロッパ、米國における滿洲學：過去・現在・未來」, 『東洋文化研究』 10; 패멀라 크로슬리, 2010, 「'신' 청사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시각과 최근동향』, 동북아역사재단; 김선민, 2011, 「'신청사'의 등장과 분기」, 『내일을 여는 역사』 45; 윤옥, 2015, 「新淸史와 앞으로의 과제」, 『역사와 세계』 47; 김형중, 2016, 「최근의 명청대 한-중관계사 연구와 '신청사': 연구동향의 분석과 전망」, 『동북아역사논총』 53.

9) Shao Dan, 2011, *Remote Homeland, Recovered Borderland: Manchus, Manchoukuo, and Manchuria, 1907-1985*, University of Hawaii Press.

10) Rawski Evelyn S., 1998, *The Last Emperors: A Social History of the Qing Imperial Institu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윤영인, 2006, 앞의글, 13쪽.

11) 마크 엘리엇, 이훈 역, 2009,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12) 패멀라 카일 크로슬리, 양휘웅 역, 2013, 『만주족의 역사: 변방의 민족에서 청 제국의 건설자가 되다』, 돌베개.

는 팔기제도가 청 제국의 근간이 되었어도 기인 중에 한인, 조선인, 몽골인, 만주와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인 및 통구스인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제국을 한족이나 만주족의 제국이라고 단순화 할 수 없다고 보았다.¹³⁾ 즉 각각의 민족정체성은 제국의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므로 민족정체성을 고정적이고 오래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청대 민족정체성의 역사성은 모호해 지는 것으로 보았다.

장婷(张婷)은 중국 근대 민족주의 역사에 대한 반성, 한족 중심주의 제거, 청조의 제국성 재검토, 청조 세계성이 검토되었다는 점에서 신청사의 관점이 참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¹⁴⁾ 그러나 일부 중국 연구자들은 신청사 연구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이해하였다.¹⁵⁾

20세기 역사연구의 주요 패턴이었던 민족주의적이고 목적론적인 중국사 서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발한 신청사는 '중국'이나 '중국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낳았다. 신청사는 만주족을 역사의 주체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이지만 이것 또한 한족 중심주의에 대별되는 만주족 중심주의라는 극단론이 있다고 비평되었다. 비록 만주족 중심주의가 될 수 있어도 100만도 안되는 만주족이 중국대륙을 지배할 수 있었던 저력은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만주족의 세계성'을 이야기하기도 한다.¹⁶⁾

중국은 중화민족론에 기초하여 통일적 다민족 국가라는 간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중국에서의 연구는 만주족이 '한화의 길'을 걸어 '중화민족' 대가정에 융합되어 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¹⁷⁾ 중국에서 이미 상당한 성과

13) 김선민, 2011, 「'신청사'의 등장과 분기」, 『내일을 여는 역사』 45, 203쪽.

14) 张婷, 2011, 「漫谈美国新清史研究」, 『满学论丛』, 79-80쪽.

15) 钟焄, 2016, 「学术与政治的交集：简析“新清史”学者的意识形态倾向(上)」, 『中国民族报』 2016.1.15.; 钟焄, 2016, 「学术与政治的交集：简析“新清史”学者的意识形态倾向(下)」, 『中国民族报』 2016.1.22.

16) 이시바시 다카오, 2009, 『대청제국 1616~1799: 100만의 만주족은 어떻게 1억의 한족을 지배했을까』, 휴머니스트.

17) 박선영, 2008, 「중화인민공화국의 만주족의 역사적 정체성: 팔기제도 관련 연구를 통해 본 만주족의 역사적 정체성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인식」, 『동북공정과 한국학계의 대응논리』, 여유당.

를 보이고 있는 청사공정 및 수많은 역사 프로젝트도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청을 ‘중국’으로, 만주족을 ‘중화민족’으로 보는 중국의 현재주의적 역사관은 청제국의 만주족 정체성과 만주족의 한족 통치, 그리고 내륙아시아로의 팽창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외부로부터 촉발된 ‘신청사’ 연구 경향은 중국으로 하여금 더욱더 변강지역에 대한 중국화에 박차를 가하게 하고 있다. 만주족 정체성을 고려하는 청사의 재해석은 만주라는 공간성 이해라는 관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

III. 민족주의적 공간으로의 만주

만주라는 공간에 관심을 갖게 된 요인 중의 하나는 제국주의의 영향력 확대라고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러시아의 만주 이권 확보와 일본의 만주 침략을 들 수 있다. 러시아가 동방정책의 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 하얼빈과 따리엔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이는 러일전쟁으로 만주에서 러시아의 힘이 약화될 때까지 확대되었다. 궁극적으로 만주문제로 집중되어 있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안보전략과 만주 개방정책이 연관성을 지닌다. 또한 제국주의 영국과 독일의 세계정책과 만주와의 관계는 각국 입장에 따라 만주라는 공간에 서로 다른 의미가 부여되었다.¹⁸⁾

만주는 제국주의 열강의 팽창정책과 만주 주변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물밀 듯 들어오는 이주자들로 다양한 문화와 생활습관, 사고방식이 대립하면서 만주라는 공간을 이해하는 상호 인식에도 차이가 있었다.¹⁹⁾ 또한 만주는 상호 이해를 촉구하는 교류의 장으로 다양한 민족이 각기 희망을 꿈꾸는 미래의 땅이자 각종 모순을 해소하는 완충지로 역할을 하였다. 청조는 만주의 ‘봉금’에서 ‘이민실변’으로의 정책 변화를 통해 만주

18) 백준기 등, 2007, 『아시아의 발칸, 만주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19) 김창호, 2007, 「만주라는 하나의 공간과 한중 두 민족의 마주보기: 한국과 중국동북 현대 문화에 투영된 ‘타자’ 형상 비교」, 『만주연구』 7.

개발에 노력하였고,²⁰⁾ 구한말 이래 조선인의 만주 이주와 만주국시기 일본인의 만주 이주 등 동아시아 각국민의 만주이주로 형성된 만주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동아시아사(일본사)로, 중국사로, 한국사로 또는 만주사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만주(만주국)의 경험은 한국 근대국가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듯이,²¹⁾ 만주는 민족주의적 공간으로 또 국제적인 공간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²²⁾ 만주 지역을 정의하고 개념화 하는 과정도 민족주의적인 시각을 내포한 정치적인 작업이기도 하다.²³⁾

제국주의 침략을 지향하는 일본은 만주와 중국의 공간을 달리 인식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 국민주의 충돌의 산물이 만주국이라고 보기도 한다.²⁴⁾ 물론 순차적으로 조선을 점령하고, 만주사변으로 만주를 점령한 후 만주국을 수립한 일본은 1937년에 중일전쟁으로 중국을 침략하였다. 침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간적인 문제를 보아도 만주는 중국과는 별개의 지역으로 설명할 필요에 부합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최장수 종합잡지였던 『조선과 만주(朝鮮及滿洲)』²⁵⁾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거나 국제 여론 및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양한 경우에서 만주를 중국과는 별개로 취급하고 있다.²⁶⁾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만주를 조선반도와 하나의 역사지리적 공간으로 인식한 '만선사'²⁷⁾ 시각이 대두되었다. 이는 러일전쟁 이후 한반도와 만주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의 문제의식과도 연관성이 있다.²⁸⁾ 일본이

20) 유지원, 2011, 『이민과 개발 : 한중일 3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21) 한석정, 2012, 「만주국: 60년대 한국, 불도저 국가의 흐름」, 『만주연구』 13; 한석정, 2010, 「박정희, 혹은 만주국판 하이 모더니즘의 확산」, 『일본비평』 3; 한석정, 2016, 『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22) 김려실, 2004, 「인터넷/내셔널리즘과 만주」, 『상허학보』 13.

23) 김선민, 2012, 「滿鮮史, 滿學, 그리고 滿洲學」, 『명청사연구』 38.

24) 박양신, 2016, 「식민정책학의 신지평과 만주문제 인식: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21.

25) 朝鮮及滿州社, 『朝鮮及滿洲』, 朝鮮及滿洲社(47호부터 126호까지는 朝鮮雜誌社출판), 1912-1941.

26)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10, 『제국의 지리학, 만주라는 경계』, 동국대학교 출판부.

27) 박찬홍, 2014, 「'만선사'에서의 고대 만주 역사에 대한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76; 並伊 桜沢, 2007, 「『滿鮮史觀』の再検討: 『滿鮮歴史地理調査部』と稲葉岩吉を中心として」, 『現代社会文化研究』 39.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요동반도 확보 여부가 중요하였으므로 그 역사적 근거를 만주의 고구려에서 찾았던 것이다. 따라서 ‘만한불가분(滿韓不可分)’²⁹⁾은 ‘만한일통(滿韓一統)’ 경영구상으로 이어졌다. 한국병합 전후 일본 지식인의 만한경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최혜주는 러일전쟁 이전 만한교환론 등장부터 시작하여 만한이주 및 경영에 대한 논의가 확대된 것은 일본이 조선과 만주에 실질적인 지배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 확보 차원으로 이해하였다.³⁰⁾

만주와 한반도와의 지리적 연결성은 『만선지리역사연구보고』로 간행되었다. 만선사관은 1919년 3.1운동 이후 고조된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억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의 만주 이민을 만선사 성립의 배경으로 중시하면서 만주사에 대한 조선사의 종속을 강조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일본의 조선 지배를 목적으로 1920년대 만선사관이 확대되었다. 일본의 경영 목적에 따라서는 만주와 몽고를 하나의 역사지리적 공간으로 묶은 ‘만몽사’적 시각도 있다. 이는 중국역사와는 별개로 ‘만주’와 다른 지역과의 역사적 연관성을 엮어 나감으로써 중국 내지와는 별도의 만주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선만일여(鮮滿一如)’라 하였고, 만주국은 ‘만선일가(滿鮮一家)’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일본이 관여하고 경영하는 조선과 만주가 전제되면서 두 지역의 결속이 강조되었지만,³¹⁾ ‘일만일체(日滿一體)’와 ‘선만일여’는 제국 일본의 위계질서 내에서 갈등하기도 하였다.³²⁾

28) 旗田巍, 1964, 「滿鮮史의 虛想: 日本の東洋史家の朝鮮觀」, 『鈴木俊教授還曆記念東洋史論叢』; 李基東 譯, 1983, 「滿鮮史의 虛想」, 『日本人의 韓國觀』, 一潮閣, 146쪽; 白鳥庫吉, 1907, 「歷史上た於ける滿洲の地位」, 『斯民』 2-1, 1907. 04; 稻葉岩吉, 1907, 「韓半島の保障と遼東半島」(上:下), 『東洋時報』 105, 1907.06.07; 위가야·이정빈, 2013, 「만선사의 비판적 재인식을 통한 동북 아시아사 구상」, 『만주연구』 16, 226쪽.

29) 稻葉岩吉, 1922, 「滿鮮不可分の史的察」, 『東洋』 25-5, 東洋協會; 조인성 등, 2009,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타키자와 노리요키, 2003, 「이나바 이와키치와 滿鮮史」, 『한일계사연구』 19, 117-119쪽에서는 조선인의 만주이민을 만선사 성립의 배경으로 중시하는데, 그 기저에는 조선사회에 대한 정체성론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30) 최혜주, 2017, 「한국병합 전후 일본 지식인의 만한경영에 대한 인식 관련 잡지의 논설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82, 126쪽.

31) 임성모, 2009, 「중일전쟁 전야 만주국조선 관계사의 소묘: ‘日滿一體’와 ‘鮮滿一如’의 갈등」, 『역사학보』 201; 송규진, 2009, 「일제하 ‘선만관계’와 ‘선만일여론」, 『한국사연구』 146; 정안기, 2011, 「1936년 鮮滿 首腦의 ‘圖們 회담’과 ‘鮮滿一如」, 『만주연구』 12.

일본의 만선사관은 1931년 만주를 침략한 만주사변을 계기로 1932년 만주국을 수립하면서 만주사의 독립적 성격을 강조하였고, 만주사와 중국사의 분리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본의 이러한 노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지식인들은 이 지역이 만주가 아니라 동북으로 중국의 역사이자 영토임을 강조하였다. 진위푸(金毓黻)나 푸쓰니엔(傅斯年)은 그러한 점에서 만주역사의 동북화 내지는 중국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³³⁾ 그들은 만주와 중국을 구분하는 것은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만주국 성립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동북사 인식은 현재 중국 영토안의 한족과 비한족을 모두 중화민족으로 보는 논리를 전제하였는데, 진위푸는 이러한 논리에 입각해 고구려의 남진을 중국 동북사의 확장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³⁴⁾

만선사 주장으로 만주를 타자화 하려는 일본에 비해 중국은 만주라는 용어는 제국주의 침략 의도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동북'으로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전에 중국공산당도 이 지역을 '만주'라고 하였다. 중국 공산당 지부 명칭이 '만주성위'였고, 1935년 만주성위가 해체³⁵⁾될 때까지 그 명칭이 유지되었다. 그 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 '중국의 동북'이 더욱 강조되었고 더 나아가 만주(동북)는 '자고이래' 중국의 영토이자 중국의 역사로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백두산도 중국화하고 있다.³⁶⁾ 비록 동일 산이지만 중국은 장백산,

32) 임성모, 2009, 앞의글.

33) 박선영, 2004, 「중국의 국가주권과 통일의 기억 만들기: 동북프로젝트의 거시적 함의」, 『中國近現代史研究』 24; 김창규, 2007, 「傅斯年の 민족문제 이해와 '東北' 인식」, 『역사학보』 193; 강성봉, 2009, 「1930-1940년 중국 지식인의 동북지역사 인식: 푸쓰넨과 진위푸를 중심으로」, 조인성 외,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83-85쪽; 이유진, 2014, 「20세기 전반 중국의 '동북' 역사기획 속에서의 주몽서사: 푸쓰넨의 「동북사강」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論集』 85; 김현숙, 2015, 「金毓黻의 廣開土王碑 연구에 나타난 고구려사 인식 변화」, 『고구려발해연구』 51; 焦潤明, 2014, 「傅斯年与东北史研究」, 『东北史地』 2014-11; 焦潤明, 2015, 「傅斯年“东北是亡不了的”思想探析」, 『社会科学战线』 2015-7.

34) 위가야·이정빈, 2013, 앞의글, 229쪽.

35) 박선영, 1999, 「만주성위의 고뇌」,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박선영, 1999, 「만주성위 해체를 통해 본 중공과 코민테른」, 『동양사학연구』 66.

36) 윤휘탁, 2018, 「중국의 '백두산공정': '長白山文化建設工程'에 관한 試論」, 『중국근현대사연구』 78.

한반도는 백두산으로 통용되던 용어도 장백산으로 일원화하고, 장백산보호 개발구를 설치하여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주도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백두산이 중화민족의 역사문화에 속한다는 장백산문화론을 창설하여 백두산(장백산)은 만주족의 발상지라는 의식을 고착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³⁷⁾ 중국의 변강·민족 인식이나 동북공정, 장백산문화론 등³⁸⁾은 만주에 대한 중국 민족주의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요하문명론-장백산문화론'³⁹⁾을 통해 고조선의 예맥족계를 배제하려고 하지만 기존 역사 사실과 충돌하자 중국 영토 내에 활동했던 모든 민족은 중국민족이고 중국역사라고 규정하여 고구려를 포함한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와 문화의 상관성은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다.

제국주의적 세력을 활용한 일본의 민족주의적 해석 및 중국의 역사 근거 만들기의 노력과 더불어 만주에는 고조선과 고구려 및 근대 변경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고토의식도 잔존하고 있다.⁴⁰⁾ 17세기 명청교체기에 동아시아 국제질서 대변동에 대응하는 조선 지식인의 '한국적 만주학'⁴¹⁾이 '탄생'하였다. 소위 만주백제설을 비판하는 연구도 있지만, 백제가 만주에서 국가로서 존재한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⁴²⁾ 또한 1910-20년대의 '만주=단군강역'론은 조선 역사의 출발점이자 민족의 요람지 및 발전 무대로 만주를 비정하

-
- 37) 윤휘탁, 2015, 「중국의 '백두산의 중국화' 전략」, 『동북아역사논총』 48, 235-237쪽.
 38) 공봉진, 2013, 「중국 만주족(滿洲族)의 민족문화회복과 중화민족화(中華民族化)에 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34; 윤휘탁, 2003, 「현대 중국의 변강·민족인식과 「동북공정」」, 『역사비평』 65; 윤휘탁, 2005, 「中國의 「東北工程」과 韓半島 「방어적 전략」인가, 「공세적 전략」인가?」, 『만주연구』 2; 윤휘탁, 2004, 「現代中國의 歷史認識과 「滿洲觀」」,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윤휘탁, 2007, 「중국의 동북 문화강역 인식 고찰: 「장백산문화론(長白山文化論)」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55.
 39) 정경희, 2018, 「중국 '요하문명론'의 '장백산문화론'으로의 확대와 백두산의 '선도(仙道) 제천(祭天)' 전통」, 『선도문화』 24.
 40) Schmid, Andre, 1997, "Rediscovering Manchuria: Sin Ch'aeho and the politics of territorial history in Korea," *Journal of Asian Studies*, Feb97, Vol. 56 Issue 1.
 41) 홍성구, 2010, 「만주 역사를 바라보는 한국적 시각의 한 모색: 許穆과 丁若鏞의 만주 諸種族 인식을 端緒로」, 『역사와 담론』 55.
 42) 백제가 만주에서 존재했다는 주장으로는 이도학, 1995, 『백제고대국가연구』, 일지사; 이도학, 1997, 『새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백제의 만주기원설을 비판하는 연구로는 김수태, 2002, 「백제의 만주기원설 검토」, 『백제연구』 35.

였다.⁴³⁾ 한국인의 만주인식을 지배하는 '만주=고토'의식,⁴⁴⁾ 간도영토론, '만주=단군강역'론, 조선민족자치구 등은 '현실로서의 만주'와 '고토로서의 만주'가 착종되면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인에게 만주는 근대적 민족을 범주로 한 역사와 문명의 기원을 제공하는 원천으로 인식되기도 한다.⁴⁵⁾

종합해 보면, 동아시아 제국가는 만주를 자국의 '정치적 의도'와의 연관성 속에서 민족주의적으로 활용하였다. 일본은 '만선'관계로 확대하여 제국의 의도를 드러내었고, 중국은 만주의 동북화를 통해 자국영역화 내지는 역사화를 꾀하였으며, 한국은 '고토'의식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이는 만주를 둘러싼 동아시아 제국가의 민족주의 유산의 무게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동아시아 민족 이산과 융합의 다원적 공간으로서의 만주

만주는 역사적으로 혼합적이면서 다양성이 증척된 곳이었다. 동아시아 각 국으로부터 이민한 다양한 민족이 상호 작용하는 곳이었다. 만주를 둘러싼 다양한 국제관계가 증척되고 갈등하는 가운데, 만주에는 만, 몽, 회족(위구르)을 포함한 중국인, 러시아인(소련인), 몽골인, 조선인, 일본인, 유대인 및 백계 러시아인, 폴란드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⁴⁶⁾ 우크라이나인, 아르메니아인, 그루지아인, 타타르인이 거주하였다.⁴⁷⁾ 만주는 민족 이산⁴⁸⁾

43) 이명중, 2015, 「1910·1920년대 조선 지식인들의 '만주=단군강역' 담론」, 『한국근현대사 연구』 74.

44) 이명중, 2014, 「17,18세기 조선에서 "만주=故土" 의식의 출현과 전개」, 『동아시아문화연구』 58.

45) 이명중, 2018, 『근대 한국인의 만주 인식』, 한양대학교출판부; 이진아, 2018, 「(서평) 한국인에게 만주는 무엇이었는데?」, 『만주연구』 25, 224-227쪽.

46) 滿洲事情案内所編, 1938, 『滿洲國の現住民族』, 滿洲事情案内所, 10쪽.

47) ヤンスェレッキ, 2006, 「ユダヤ白系ロシア人にとっての滿洲」, 藤原書店編輯部 編, 『滿洲とは何だったのか』(新裝版), 藤原書店, 397-398쪽; Sergienko, Vera; Aurilene, Elena, 2008, "The Legal Status of Russians in Manchuria (the 1920s)," *Far Eastern Affairs*,

의 집결지이자 이 모두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융합⁴⁹⁾의 공간이었다. 이산(離散), 정착, 유리(流離), 탈출, 방황으로 점철된 무수한 정체성이 형성되고 경험 되어 왔던 역사적 현재적 장소로서 만주는 동서양의 디아스포라가 만나는 점점 기능을 하는 곳이자 ‘동양의 엘도라도’⁵⁰⁾와 같은 위상을 지니기도 하였다. 따라서 만주는 다양한 민족의 공존으로 ‘아시아판 인종 전시장’⁵¹⁾이 되었다.

만주는 동아시아 각국에서 새로운 삶을 추구해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능성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신천지이기도 하였다. 새로운 삶의 안식처로 또 정치적 도피처로 만주는 관심을 끌었다. 제정 러시아 시기 유태인의 박해 정책과 시베리아 철도 부설로 유태인이 만주로 이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러시아 혁명당시 러시아 전역에서 유태인 약 20만 명이 학살⁵²⁾당하자, 혁명의 격동을 피해 또 유럽에서 나치의 핍박을 피해 유태인 2만여 명이 일시에 만주로 몰려들기도 하였다.⁵³⁾ 1917년 하얼빈의 유태인은 동북아 최대의 시오니즘(Zionism) 조직을 결성할 정도였다.⁵⁴⁾ 그러나 만주에서 만주국 수립, 국공내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유태인 수는 급감하였다.⁵⁵⁾

만주로 모여든 개인과 국가의 공통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운 삶의 출구와 희망을 발견하려는 것이었다. 관내로부터 이주한 중국인⁵⁶⁾이나 조선

36(1).

48) 김경일 외, 2004,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Shaw, May-yi, 2010, “Wartime diaspora: The reworking of cultural and national identity among Chinese and Japanese writers in 1930s and 1940s wartime China,” Dissertation of Harvard University; Stephan, John J, 1997, “Hijacked by Utopia: American Nikkei in Manchuria,” *Amerasia Journal* 23(3); Jin-kyung Park, 2017, “Interrogating the ‘population problem’ of the non-western empire: Japanese colonialism,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global geopolitics of race,” *Intervent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ostcolonial Studies* 19(8).

49) 노기식·한석정, 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50) 윤휘탁, 2012, 「유태인의 만주 이산과 삶」, 『중국근현대사연구』 54, 168쪽.

51) 한석정, 2011, 「서문」, 『동북아역사논총』 31, 7쪽.

52) 程紅澤, 2007, 「蘇俄國內戰爭時期猶太人對外遷徙述略」, 『西伯利亞研究』第34卷 第1期, 82쪽.

53) 滿洲事情案內所編, 1938, 『滿洲國の現住民族』, 滿洲事情案內所, 73쪽.

54) 王水, 2006, 「哈爾濱猶太人社區的建立及基本狀況」, 『黑龍江社會科學』 第6期, 115-116쪽.

55) 劉爽, 2006, 「哈爾濱猶太人歷史活動分期」, 『學習與探索』 第3期, 155쪽.

56) 윤휘탁, 2009, 「민국시기 중국인의 만주 이주와 귀향」, 『중국사연구』 63.

인의 경우 개인적으로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 토지를 개간함으로써 부를 창출하려는 욕망이 있었다. 이동진이 강조하듯, 조선인에게 만주는 디아스포라였을 뿐만 아니라 재만 조선인으로서 '식민'의 요소도 포함되는 것이었다.⁵⁷⁾ 그 외 개별적인 민족의 만주 이주도 또한 새롭게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보고(寶庫)이자, 억눌렸던 문화적 욕구를 배설하고 싹틔울 수 있는 실험 무대였다. 러시아나 일본의 경우 만주를 장악하는 것이 제국주의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국가적 희망이 되었다.

조선의 만주 이주를 일본의 식민지 지배 구조에서 보려는 시도,⁵⁸⁾ 선만척식회사 설립 경위를 중심으로 조선총독부의 만주 이민정책을 분석한 것,⁵⁹⁾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인의 만주이주와 1930년대 일제의 조선인 만주 이주 정책을 살펴보기도 하였다.⁶⁰⁾

1960년대 이래 일본의 만주 이민에 대해서는 이민 이유와 이민정책,⁶¹⁾ 이민동원,⁶²⁾ 이민농업경영,⁶³⁾ 이민실태,⁶⁴⁾ 여성과 청소년 이민,⁶⁵⁾ 이민자

-
- 57) 이동진, 2012, 「만주국의 조선인: 디아스포라와 식민 사이」, 『만주연구』 13.
 58) 김영숙, 2018, 「조선인의 만주 이주와 일본의 식민지 지배 구조: 만주국 건국 이전을 중심으로」, 『사림』 66.
 59) 조정우, 2014, 「조선총독부 만주이민정책의 이면: 선만척식회사 설립 경위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03.
 60) 박인철, 2009, 「1930~1940년대 조선인의 만주이주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사례」, 『한일민족문제연구』 17; 김기훈, 1998, 「1930년대 일제의 조선인 만주 이주 정책」, 『전주사학』 6.
 61) 郑毅, 2014, 「帝国意识支配下的东亚人口移动问题研究: 以日本“满洲移民”政策为中心」, 『社会科学战线』 10; 石艳春, 2014, 「日本“满洲移民”时期的庄内型移民: 以大和村为例」, 『齐齐哈尔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1; 石艳春, 2013, 「日本“满洲移民”时期的“大陆新娘”」, 『南昌航空大学学报(社会科学版)』 1; 孔艳波, 2009, 「日本“满洲移民”政策对中国东北移民活动的影响」, 『日本研究』 4; 石艳春, 2008, 「日本“满洲移民”政策的制定与实施」, 『日本研究论集』 2008; 高尔才, 1999, 「日本“满洲移民”战略意图新探」, 『世界历史』 5; 高尔才, 1999, 「日本“满洲移民”政策的三点透析」, 『东北师大学报』 4.
 62) 김윤미, 2009, 「일제의 '만주개척' 정책과 조선인 동원」, 『한일민족문제연구』 17; 孙继强, 2013, 「战时日本纸媒视野下的“满洲移民”运动」, 『东北史地』 6;
 63) 石艳春, 2008, 「日本“满洲移民”农业经营形态的变迁: 以弥荣村为例」, 『辽宁工程技术大学学报(社会科学版)』 5; 김영숙, 2018, 「1930년대 일본 농민의 만주 이주와 농업 개량」, 『한일일본학』 17; 크레이그 크리스토퍼, 「일본 도호쿠(東北)지방 농민과 민주이민: 미야기현의 지주 소작인을 중심으로」, 『한립일본학』 31.
 64) 石艳春, 2013, 「日本“满洲移民”的生活实态刍议」, 『学理论』 26; 石艳春, 2008, 「略论日本“满洲移民”的类型」, 『辽宁省社会主义学院学报』 2.
 65) 石艳春, 2010, 「日本“满洲移民”中的女性」, 『社会科学辑刊』 2.

생활실태,⁶⁶⁾ 기억의 장⁶⁷⁾뿐만 아니라 만주이민의 전후 처리 문제 등⁶⁸⁾에도 관심을 가졌다.⁶⁹⁾

‘희망’의 만주에는 19세기 말 만주족, 한족, 조선인 등 1700여만 명⁷⁰⁾이 살았지만, 1940년에는 4300만 명으로 확대되었다.⁷¹⁾ 따라서 동서양의 민족이산으로 형성된 만주는 동아시아 제국가의 정책이 충돌하고 반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 교류하며 융합을 모색하고 실험하는 실험실⁷²⁾이기도 하였다.

만주(요동)에 설치한 한중관계 정부기구들을 통해 보자면 만주는 한중관계의 매개자이자 완충지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통로로서 역할한 측면과 조선과 명의 행정과 정보교류의 장이자 외교 사안을 분담하는 역할로서도 기능하였다.⁷³⁾

만주는 단순한 지리적 의미에서 조선의 외부로 의미화되었다가 다시 조선의 내부와 상상적 또는 상징적으로 동일시되며 의미화되기도 하였다.⁷⁴⁾

-
- 66) 김영숙, 2014, 「일본 농민의 만주 이주, 군(軍)과 민(民) 사이」, 『일본학』 38.
67) 赵彦民, 2013, 「战后日本满洲移民“记忆之场”的生成: 以20世纪60-70年代原开拓团的建碑、祭奠活动为中心」, 『民俗研究』 3; 石艳春, 2010, 「日本国民性之探究: 以“满洲移民”的宗教信仰为中心」, 『人民论坛』 17.
68) 关伟, 关捷, 2002, 「日本“满洲移民”诸问题探讨」, 『抗日战争研究』 2.
69) 일본의 만주 이민 연구를 종합한 것으로는 张晓刚, 段凡, 2019, 「战后日本学术界关于“满洲移民”问题的研究管窥」, 『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 5.
70) 滿洲國史編纂委員會編, 1971, 『滿洲國史 總論』, 滿蒙同胞援助會, 74쪽.
71) 滿洲國史編纂委員會編, 1971, 『滿洲國史 各論』, 滿蒙同胞援助會, 58쪽; 山中峰央, 2010, 「「滿洲國」の人口推計と民族構成」, 『만주연구』 10.
72) 한석정, 2004, 「동북공정 논쟁 그리고 만주의 기억」, 『문화과학』 40; Sugiyama Tomoko, 2003, “From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international conflict: Statesmen, soldiers, and political coalition for Japan's national security in 1930-1933,” Dissertation of Columbia University; Chavanne, Jonathan Blackshear, 2017, “Collision in Manchuria: rescue, intelligence, and the Cold War in Asia, August–September 1945,” *Intelligence & National Security*, Jan., Vol. 32 Issue 1.
73) 정동훈, 2018, 「한중관계에서의 요동」, 『역사와현실』 107, 29쪽; 정동훈, 2018, 「고려-거란 관계에서 세 층위의 소통 구조」, 『역사와현실』 107; 오기승, 2018, 「원대 요동 여원(麗元) 접경에서의 요양행성 역할 고찰」, 『역사와현실』 107; 이규철, 2018, 「15세기 초반 조선과 명의 정보교류와 요동(遼東)」, 『역사와현실』 107; 김창수, 2018, 「조선·청 외교문서의 교섭 경로와 성격의 역할」, 『역사와현실』 107.
74) 전성현, 2010, 「일제시기 “만주” 개념의 역사성과 부정성」, 『석당논총』 47, 265쪽.

조선인들이 지배/피지배의 틈새를 횡단하며 자유/부자유의 분할을 해제하면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주에서 열었던 것처럼, 만주는 이질적이고 다층적인 지점이 있으면서도 공동척도가 없는 다원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⁷⁵⁾

V. 갈등과 질서변동의 발원지로서의 만주

만주에 대한 세계사적인 관심은 16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면서부터라고도 할 수 있다. 동아시아 및 세계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던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은 동아시아에서 만주의 지정학적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케 한 전쟁이었다. 특히 세계 정복을 꿈꾸며 만주를 교두보로 확보하고자 하는 일본과 중국 내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만주를 지켜야 하는 중국은 만주를 둘러싸고 충돌하였다. 따라서 만주는 여러 나라의 우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분쟁의 씨앗이 심겨진 충돌의 요람(Cradle of Conflict), 언제든지 세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아시아의 조종실(The Cockpit of Asia)이자 아시아의 화약고(The Tinderbox of Asia), 제3차 세계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세계 위험지대(World's Danger Zone)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만주를 변동의 핵(Core of Transformation), 변동의 배꼽(Umbilicus of Transformation)으로 보았다.⁷⁶⁾

75) 곽은희, 2014, 「만주와 헤테로토피아 : 틈새의 헤테로토피아, 만주」, 『인문연구』 70, 108쪽.
 76) 美國代表楊華德在大阪之演詞, 「東三省問題與世界」, 蘇上達·祁仍奚 編, 1930, 『第三屆太平洋國交討論會紀要』; 潘雲龍 主編編, 1978, 『近代中國史料叢刊續編』 第50輯, 文海出版社, 台北, 114쪽; “The Problems of Manchuria,” J. B. Condliffe, eds., 1969, *Problems of the Pacific 1929*, originally published in 1930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irst Greenwood press reprinting, p.155; G. E. Sokolsky, 1932, *The Tinderbox of Asia*, Doubleday, Doran & company, inc.; Yosuke Matsuoka, 1929, “An Address on Manchuria Its Past and Present,” Third Biennial Conferenc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p.1; Sherwood Eddy, 1932, *The World's Danger Zone*, Ferris Printing Company; Steven I. Levine, 1987, *Anvil of Victory: The Communist Revolution in Manchuria, 1945-1948*, Columbia University Press; Owen Lattimore, 1932, *Manchuria: Cradle of Conflict*, The Macmillan Company; Colonel P. T. Etherton,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Arnold J. Toynbee)는 800년 주기로 동서양의 문화적 주도가 교체되었음을 시사하면서 ‘운명을 막아낼 갑옷은 없다’⁷⁷⁾라고 하였다. 그는 “평화의 확립과 인류 문명의 진전에 주요하고 적극적인 공헌을 하는 것은 동아시아가 될 것”⁷⁸⁾을 예견하였고, “언제라도 만주 문제가 대두되면 (동아시아: 저자) 전 국민의 감정이 충전되어 가장 거대한 장애물로 등장하는 것이 두렵다”⁷⁹⁾고 하였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관심은 태평양에 있고 태평양의 핵심은 중국에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곳은 만주이므로 만주는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⁸⁰⁾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이래 만주는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동아시아 차원에서 또 세계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논의되었다. 냉전시대가 붕괴되고 동아시아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국제 학술장이었던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IPR)에서만 이 아니라⁸¹⁾ 국제연맹에서도 만주사변 문제가 논의되었다.⁸²⁾

시대에 따라 성격을 변화시켜온 만주는 역사적으로 중국·일본·러시아 및 한반도와 이해관계가 깊고, 영국·프랑스·미국 등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⁸³⁾ 근대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에서 판도를 유지하였

1933, *Manchuria: The Cockpit of Asia*, The Mayflower Press, Plymouth, William Brendon & Son, Ltd.; 박선영, 2004, 「정체성 계입시대의 중국과의 역사전쟁」, 『역사학보』 182.

77) 서머벨, D.C 편, 박광순 역, 1992, 『(A.J.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범우사, 235쪽.

78) 토인비, 아놀드 조셉 저, 최혁순 역, 1991, 『토인비와의 대화』 1권, 범우사, 218쪽.

79) Dr. Toynbee, 1930, “writes on Dairen and Port Arthur,” *Dairen*, March 12, No. 116.

80) 「太平洋討論會中國支部開幕重重」, 『益世報』, 1929. 12. 4.

81) 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IPR)을 중국에서는 太平洋国交讨论会나 太平洋国际学会, 太平洋学会 혹은 太平洋会议로 번역하였고, 일본에서는 汎太平洋会议, 太平洋国际关系研究会, 太平洋问题协议会, 太平洋关系调查会, 太平洋问题调查会 등으로 명명하였다. 한국은 太平洋问题调查会 혹은 太平洋问题研究会라 명명하였다. IPR에 대한 번역어로 각기 사용하여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을 통일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IPR로 통칭하고자 한다. 박선영, 2016, 「아시아·태평양학의 형성과 발전: IPR과 지역학의 연계성」, 『중국사연구』 104; 박선영, 2016, 「주권 회복을 위한 중국 민간의 노력: 1929년 IPR회의 치외법권 철폐 논쟁을 중심으로」, 『중국 근현대사연구』 71; 박선영, 2015, 「창과 방패의 딜레마: 1929년 제3회 IPR회의의 만주 논쟁」, 『중국사연구』 98.

82) 박선영, 2018, 『글로벌 만주』, 한울아카데미.

83) “The Problems of Manchuria,” J. B. Condliffe, eds., 1969, p.200.

고, 미약하나마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가 관심을 가졌던 곳이다. 만주문제의 복잡성은 중국·일본·영국·미국 등 9개국의 권리를 포함하여 워싱턴 9개국 조약⁸⁴⁾을 체결한 후 더욱 명확해 졌고 후에 일본의 이권이 더해지면서 만주 논란을 가열시켰다. 미국의 조셉 반스(Joseph Barnes)는 자연자원이 풍부한 만주는 일본·러시아·중국 등이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어서 1918년 이래 세계 평화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쳐 왔던 곳이라고 하였다.⁸⁵⁾

냉전시대가 종식되면서 러시아·북한·한국·몽골·일본·미국과 중국 사이의 쌍방 관계나 다변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면서 만주지역은 동북아의 중심으로 전략적 지위⁸⁶⁾를 갖게 되었다. 중국에게 만주는 학술문제가기도 하지만 국가영토, 강역, 주권과 연관되는 정치 문제이어서 국가 안전과 직결되므로 중국 국내의 문제이자, 복잡한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되었다.⁸⁷⁾

따라서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만주의 중국화'를 시도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증원과 갈등 관계였던 거란(契丹)·말갈(靺鞨)·달단(韃靼)·만주족(滿洲族) 세력이 모두 만주에서 성장했다.⁸⁸⁾ 원(元)왕조도 외몽고로부터 남침하여 증원의 주인이 되었는데 역사적으로 만주 및 몽고를 장악하는 자는 북으로부터 시작하여 남쪽까지 전체 중국을 통제하였다. 만주를 포기하지 않아야 비로소 화북에 정착할 수 있었다.⁸⁹⁾ 따라서 만주에서 시작된 변화는

84) 중국에 관한 9개국 조약은 1922년 워싱턴 회의에 참가한 미국·영국·네덜란드·이탈리아·프랑스·벨기에·포르투갈·일본·중국 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문호개방·영토보전·기회균등·주권 존중의 원칙 속에서 일본의 중국진출을 억제함과 동시에 중국의 권익보호를 표명한 것으로 조약 발효 시기는 1925년 8월 5일이다.

85) Prepared by Joseph Barnes, American Council,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The Manchurian Conflict', Pacific Relations, Box 134, Manchuria-Fugitive Material, Columbia University Libraries Manuscript Collections.

86) 『东北工程简介』http://bjs.cssn.cn/zdxm/zdxm_dbgc/dbgc_gcj/(2018년 10월 31일 검색); 王洛林, 2003, 「加强东北边疆研究, 促进学科建设」, 『中国东北边疆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4쪽.

87) 金哲洙, 2003, 「开展东北边疆问题研究的几个问题」, 『中国东北边疆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7-8쪽.

88) 武尚權, 1944, 『东北地理與民族生存之關係』(東北叢書 第1種), 獨立出版社, 重慶, 131쪽.

89) 趙闢文, 1981, 「旅京東北人士致魏德邁特使備忘錄」, 『東北文獻』 12-2, 7쪽.

중국을 변화시켰다.

중국근현대사에서 일종의 '변화의 시대'로 인식되어지는 1920년대 군벌 할거 시대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강력한 국민국가를 창출하려 했던 국민혁명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통합해야 할 곳이 만주였다. 1920년대 말 만주를 장악했던 장쑤에량의 '동북역치' 결단은 국민혁명의 결정판으로서 중국 통일을 완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중국 측에서 보면 '동북역치'가 중국을 통일하는데 기여한 '효자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면 '동북역치'는 일본의 만주 점령 계획을 구체화시켜 중국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촉진제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역설적이다. 중국의 통일도 만주에 달려 있었지만, 중국의 혼란상과 분열상을 재창조하는 '불씨'도 만주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씨는 세계 제2차 대전의 동아시아 기점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질서변동의 발원지로서의 만주를 재확인 할 수 있다.

1945년 11월 15일 중국 외교부가 미국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보를 보내 만주의 위상을 설명한 바 있다. 만주 사태는 비단 중국의 영토권과 통일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아시아의 평화와 질서에 중대한 위험을 조성하였다. 동아시아 대륙과 서태평양의 위기는 바로 만주를 기점으로 가속도로 발전하고 있다⁹⁰⁾고 하면서 미국의 협조를 요구하였다.

일본이 패망하고 제2차 국공내전이 발발하였을 때에 국민정부 장개석은 만주는 국방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만주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동아시아 전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고 전쟁이 폭발하면 수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중국정부가 만주를 장악하지 않으면 중국이 근대 산업화된 국가로 발전하기 힘들다⁹¹⁾고 인식하였는데, 만주가 없으면 화북이 없고, 화북이 없으면 중국이 없기 때문이다.⁹²⁾

국공내전 당시 만주는 중국공산당과 중국혁명의 변화상으로 보았을 때도

90) 蔣中正, 1974, 『蘇俄在中國：中國與俄共30年經歷紀要』, 中央文物供應社, 1956 초판, 1974 27판, 150~153쪽.

91) Donald G. Gillin and Ramon H. Myers, 1989, *Last Chance in Manchuria: The Diary of Chang Kia-NGau*, Hoover Institution Press, Stanford University, p. 1.

92) 陳孝威, 1964, 『爲什麼失去大陸』, 文海出版, 284쪽; 佟冬 主編, 1998, 『中國東北史』 6卷, 吉林文史出版社, 690쪽.

특히 중요한 곳이었다. 만약에 공산당이 모든 근거지를 다 잃었다 해도 만주만 있으면 중국혁명의 기초는 견고한 것이다. 물론 다른 근거지도 잃지 않고 만주도 있다면 중국혁명의 기초는 더욱더 공고⁹³⁾하다고 강조하였다. 중국 현대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드는데 역할을 한 요심(辽沈)전쟁은 중국공산당이 국민당과 결전하여 승리를 하는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⁹⁴⁾ 만주에서의 공산당 승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역사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전후의 만주는 냉전 구도(미국·유엔 대 소련·중국공산당)에서 해석되기도 하였으나 전후 만주는 '냉전'의 무대라기보다는 전후 평화구상을 체현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 중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⁹⁵⁾ 구체적으로는 중국과 소련이 일본의 군사적 대두를 억제하기 위해 전후 만주를 거점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만주는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매개이기도 하였다. 만주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북한이 교류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보나 북한으로 보나 만주가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북한은 한국 전쟁시 중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자 중국의 주은래(周恩來)는 북한이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전초기지를 지킨 것으로 북한의 북부를 지킨 것은 중국의 건설을 지킨 것⁹⁶⁾이라고 하였다. 중국 중공업의 절반이 만주에 있고 만주 공업의 절반이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미제국주의의 공격 범위 안에 있는데, 그들이 압록강을 건너면 중국은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⁹⁷⁾ 즉, 만주가 없으면 중국이 없다고 할 정도로 중국은 만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장래 세계 제3차 대전을 일으킬 나라는 일본이고, 일본이 동아시아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협할 위기의 도화선은 만주에서 시작⁹⁸⁾된다고 보기도 한

93) 張慶峰, 1995, 「毛澤東與東北解放戰爭」, 『中國現代史』 2, 179쪽; 王金鈺·陳瑞云 主編, 1988, 『中國現代史詞典』, 吉林文史出版社, 177쪽.

94) 魏宏運, 1999, 『民國史紀事本末』 7, 遼寧人民出版社, 527쪽.

95) 松村史紀, 2012, 「滿洲國崩壞後の東アジア : 二つの中ソ同盟からの考察」, 『만주연구』 13.

96) 「周恩來接見朝鮮最高人民會議代表團談話記錄」, 1962년6월28일, 中國外交部檔案館, 109-03158-01.

97) 劉金質, 楊淮生 主編, 1994,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 1(1949-1952), 中國社會科學出版社, 51쪽.

98) 武尙權, 1944, 앞의 책, 142-143쪽.

다. 만주 질서 파괴는 중국 질서를 파괴하고, 중국 질서 파괴는 동아시아 균형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서 결국 세계평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동북 안전의 보장은 세계평화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점”⁹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VI. ‘관행’으로서의 만주

앞에서 언급한 만주의 공간성과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검토한 것이 만주에서의 ‘관행’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이유는 만주라는 공간에서의 ‘관행’은 만주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기타 지역과 다른 ‘관행’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역적 차이에 따른 관행의 차이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연구해 오던 것이 다.¹⁰⁰⁾ 이를 강화시킨 것이 인천대를 중심으로 한 관행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국내 중국학 재생산 구조가 부재하여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적 시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국에 대한 독자적 전략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문제 의식으로 출발하여 중국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 것이 소위 중국의 사회 경제 관행 연구이다. 이를 통해 ‘근대성의 중국적 재구성’과 ‘전통의 근대적 재구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현재 중국의 미래를 역사학적으로 전망할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¹⁰¹⁾ 중국적 표준이 설정되는 장기지속적인 중국의 사회 경제 관행을 주목하는 이유는, 유구한 역사속에서 지속성, 반복성, 항상성, 명료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구성원의 동의를 통해 규범력이 인정되어 그 자체로서 사회적 강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회적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¹⁰²⁾

99) 武尙權, 1944, 앞의 책, 144쪽.

100) 박선영, 2013, 『만주란 무엇이었는가』, 소명출판. 일본에서 연구한 만주를 집대성한 것인데, 여기에는 만주지역의 특성을 연구한 글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101) 전인갑장정아, 2010, 「중국 관행 연구와 중국 연구의 재구성」, 『중국근현대사연구』 48, 134-135쪽.

따라서 중국의 사회경제적인 관행은 중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근대 만주 사회 구조 변화를 이해하는 특징으로 이민, 개방, 철도라는 키워드를 통해 사회 경제적인 관행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사회의 안정성을 이루는 내적질서는 종족 및 향촌 조직, 민간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층적 역사 과정을 통해 검증된 중국인 일상생활을 제어하는 무형의 사회운영시스템으로서 만주지역의 민간신앙이 어떻게 근대적으로 재구성되는가 하는 것은 사회 내적 질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테마이다.

청말 만주로의 이민 증가와 민간신앙의 확대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민과 함께 숭배 대상이나 사묘(祠廟), 묘회(廟會) 등 민간신앙이 내지에서 유입되어 복제되는 과정을 통해 만주 특성의 새로운 민간신앙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산림지대가 발달한 만주지역의 자연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동물신 등 자연숭배를 중시하는 샤머니즘이 내지에 비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내지 민간 신앙이 만주에 누적되는 영향정도에 따라 지역적 편차가 있으며, 여러 신위(神位)가 하나의 사묘에 배치되는 현상이 상대적으로 농후하기도 하다.¹⁰³⁾

만주지역의 민간종교 또한 대규모 이민에 수반된 문화적 이식과 복제로 형성되었다. 이는 천재(天災)와 인화(人禍)는 민간종교가 흥기하는 바탕이지만, 특히 만주지역은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하는 이주민이 종교결사에 더욱 의존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각종 위험에 대한 '수세적' 행위가 만주지역 고유의 특징이었다. 당국의 단속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로 회피하려 하였고, 비밀결사보다는 활동이나 조직이 공개적이었다. 이는 중국사회의 장기지속적인 토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의 의도로 근절하기 어려운 인민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¹⁰⁴⁾

102) 전인갑장정아, 2010, 앞의 글, 139쪽.

103) 박경석, 2014, 「근대시기 중국동북지역 민간신앙의 '복합성」, 『중앙사론』 40, 234-235쪽.

104) 박경석, 2014, 「민국시기 동북지역의 민간종교결사와 지방당국의 대응」, 『중앙사론』 39, 279-281쪽.

사전(祀典)운영 문제에서도 만주지역의 민간신앙 및 민간종교는 연관성이 있다. 비록 민국시기에 국가제사에 있어 전통과 근대의 긴장 관계가 최고조에 달하여 자연신 숭배의 폐지 및 숭배 대상의 축소 정비, 의례의 정비와 간소화 등 근대적 변모를 꾀하였으나 청대에 증시되던 공자(孔子)와 관제(關帝) 제사는 전통방식을 유지하였다. 청대와 민국시대 사전(祀典)에는 형식과 내용에서 변화하는 것도 있었지만, 국가제사가 사회적 통제와 통합의 기제로 작용하고 문화적으로 제국의 통합성을 뒷받침하는 하부시스템으로 작용하는 근본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¹⁰⁵⁾

경제적인 관행과 관련해서는 상회(商會), 기업이나 토지 매매 등이 관행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관통하며 현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봉천(奉天)의 상인 단체를 통해 만주지역 상회의 특징을 본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 중국인 및 일본인 동업조합이 혼재될 뿐만 아니라 중국 지방 정권이 지배하는 지역과 일본 식민지배가 관철되는 지역이 구별되어 있으면서도 혼재되어 있는 복합성 구조를 가지고 있다.¹⁰⁶⁾ 또한 대체통화의 통용, 공권력의 불안정과 지역 행정의 상대적 취약성, 이주 상인의 지역 정체성 고양은 봉천 상인을 둘러싼 지역적 특성이 공의회(公議會)를 개조하는 형식으로 상회가 신속하게 보급되는 특징이 있다. 더불어 봉천 상인단체에 대한 영향력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지역정권과 긴밀하게 관계했던 점도 특징이다.¹⁰⁷⁾

만주지역의 기업구조 차원에서 봉천방사창(奉天紡紗廠)을 통해 기업 지배 구조의 관행을 보면,¹⁰⁸⁾ 대주주 권한의 남용에 의한 자본평등성의 부재, 경영 책임에 따른 경영인 및 직원층에 대한 이윤분배 시스템, 변용된 형태의 관리(官利) 등과 같은 전통성이 채무청산에 대한 유한책임구조, 근대적 재무관리와 합리적 의사결정구조, 자유로운 양도권 등의 근대성과 혼재되어 있는

105) 박경석, 2015, 「清末民國時期 地方祀典의 지속과 변용」, 『중국근현대사연구』 65, 31-33쪽.

106) 박경석, 2013, 「清末民國時期 奉天商人團體의 概況과 '複合構造」, 『중국근현대사연구』 58, 128쪽; 김희신, 2013, 「만주국 수립 이전 봉천의 상업과 중국 상인의 동향」, 『중국근현대사연구』 60, 188쪽.

107) 박경석, 2013, 「清末民國時期 奉天商人團體의 概況과 '複合構造」, 『중국근현대사연구』 58, 128-129쪽.

108) 김희신, 2014, 「중국동북지역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관행」, 『중앙사론』 40, 169-170쪽.

것이다.

만주는 신개척지로 혈연 지연관계를 기초로 상업이 발달하였으며 동향네트워킹의 거점으로 동향회관을 세우고 상인단체를 조직해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조직과 상거래 방식으로 영업규칙을 정하고 상업 질서를 지키는 관행을 유지하기도 하였다.¹⁰⁹⁾

청대는 '기민불교산(旗民不交產)'의 원칙으로 기지를 민인에게 전매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만주지역으로의 이민이 확대되면서 민인에게 기지를 매매하는 것도 보편화되었다.¹¹⁰⁾ 명대 이전부터 존재한 전매(典賣)관행에 대해 청조는 법률 등을 수정하여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인 민간관행에 대해 조정을 시도하였지만 전매관행은 광범위하게 지속되었다. 기지 매매 자체가 불법이므로 매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매관행이 더욱 보편화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만주지역의 관행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경기둔간(京旗屯墾)이다. 청대 길림지역의 경기둔간은 '은양기인(恩養旗人)'이라는 국가의 대원칙을 동요시키는 정책으로 후대의 자발적인 이민과 비교하면 국가가 강제한 이주이자 개간정책이었다.¹¹¹⁾ 팔기의 생계문제로 출발한 경기둔간은 기인들의 다양한 요구와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주어지면서 기인들의 자립 기반을 방해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청대 만주족과 만주와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기인들은 일반 이민자와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또 다른 청대의 관행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그 외에 만주지역 기업 경제¹¹²⁾와 철도¹¹³⁾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김지

109) 김희신, 2014, 「중국 동북지역의 상업자본과 상점 네트워크」, 『중국근현대사연구』 62, 82-83쪽.

110) 허혜운, 2013, 「清代 동북지역의 旗地 매매와 분쟁」, 『중앙사론』 37, 338-339쪽.

111) 허혜운, 2017, 「이주와 개간: 청대 '京旗屯墾' 정책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46, 529-530쪽.

112) 김지환, 2014, 「중국 동북지역 외자기업의 설립 배경과 경영: 1920년대 滿洲紡績株式會社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40; 김지환, 2015, 「중국 동북지역 중일자본 기업의 경영 비교: 奉天紡紗廠과 滿洲紡績株式會社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65.

113) 김지환, 2013, 「中國 東北地域 상품유통망의 변화와 東清鐵道の 매각」, 『역사학보』 217; 김지환, 2014, 「拉濱鐵道 부설과 중국 동북지역 물류유통의 변화」, 『중국근현대사연구』 63; 김지환, 2008, 「만철과 동북교통위원회」, 『중국근현대사연구』 40; 김지환, 2015, 「만주 간

환은 일본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만주 시장의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사건으로 동북해관 접수와 만주국의 재정운용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정책을 꼽았다.¹¹⁴⁾ 제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한반도-안동-봉천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유통망의 개발과 만주지역 자체 내의 직포업 발전으로 면제품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 더욱이 봉천방사창, 만주방직주식회사 등 기계제 사창에서 생산되는 저렴한 면사는 만주지역 직포업의 비약적 발전에 기여하였다.¹¹⁵⁾

만주에서의 관행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되던 만주에서의 관행뿐 아니라 새로운 측면의 만주 모습도 그릴 수 있어서 기존의 만주라는 공간적 특성의 이해에 더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II. 결론: '만주' 실체 이해에 대한 제언

본고에서는 신청사 담론으로부터 출발하여 만주의 공간성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민족주의적 공간, 동아시아 민족 이산과 융합의 공간, 질서변동의 발원지뿐 아니라 만주에서의 '관행'이라는 차원에서 해석되는 만주의 면모를 검토해 보았다.

만주의 다양한 면모는 만주의 특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중국 역사의 일부 혹은 동아시아사의 일부, 아니면 만주의 역사로 이해할 것이냐? 물론 만주는 전통시대부터 현대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 만주 자체의 특성으로 볼 수도 있고,

선철도망 형성의 역사적 회고, 『만주연구』 20; 김지환, 2013, 「安奉鐵道 改築과 중일협상, 『중국근현대사연구』 59.

114) 김지환, 2016, 「만주국의 중국동북해관 접수와 동북시장의 변화, 『만주연구』 22, 219쪽.

115) 김지환, 2015, 「南通大生企業과 중국 동북시장: 일차대전 종전 후 大生紗廠의 대일 차관 교섭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33, 433-434쪽.

21세기처럼 중국이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역사 속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만주를 만주(요동) 그 자체로¹¹⁶⁾, 혹은 중국사 차원에서, 동아시아사 차원에서, 더 나아가 세계사 차원으로 보거나 어느 특정 시대를 통해 보더라도 만주가 경험하는 시대적 특성에 따라 만주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만주가 국민국가라는 근대 법적인 체계 안에 있었을 때의 상황과, 국가와 국가간의 경계 및 변경지대가 명확하게 '점'에서 '선'으로 확정되었던 국제법적 통제를 받는 시대와 그러한 국제법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

따라서 '만주'에 대한 이해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3가지 방면이 병행 혹은 교차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만주'라는 지역 그 자체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만주의 내적 외적 모습의 변화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시대적, 공간적 특성이 무시된 채 중국의 관주도 역사연구처럼 만주를 '자고이래' 중국의 역사로 간주하는 것은 만주의 공간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주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사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¹¹⁷⁾ 청조와 민국시기 관방 당안자료가 소장된 중국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성급(省級) 및 현급(縣級) 당안관 그리고 북경 제1 당안관에 소장된 각종 자료의 발굴과 역사적 맥락에 부합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지, 각종 총서류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통사나 필기자료, 근현대 발행된 신문 잡지, 다양한 여행기나 조사 보고,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 등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족 중심의 자료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및 타자의 시선이 포함된 다양한 자료를 통해 만주의 실체를 다층위적으로 밝히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이 비록 새로운 것

116) 김한규, 2004,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김한규, 2008, 『『요동사』』, 『한국사 시민강좌』 42; 심재훈, 2017, 『『요동사』와 그 이후 : 참여자와 관찰자의 시각』, 『역사학보』 234.

117) 안치영·허혜운, 2014, 「중국 동북지역 연구 자료 : 청대와 민국시기를 중심으로」, 『만주 연구』 18.

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민족주의적 요소의 재해석이 필요하다. 시대에 따라 만주지역의 역사와 영토의 범주는 변화가 있었다. 어느 국가의 역사와 영토도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동일할 수 없는데 만주를 고대로부터 ‘중국 영토’로 규정하고 ‘중국사’ 차원에서만 연구하는 것은 역사성을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영토와 국민의 귀속성은 정치와 경제를 어떤 관점으로 규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비판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설사 그것이 일부 민족주의적인 측면이 있다 해도 민족주의적 요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향후 만주지역에 있었던 다양한 종족에 대해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조선 세조대에 요동 인구의 3/10 정도를 차지했던 고려인이나 한반도에서 출발한 성씨라고 알려진 박씨의 만주 거주 등 경제인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 전통시대와는 상당히 다른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시대에서 역사적인 공간과 현실적인 공간의 차이를 어떻게 달리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셋째, 만주를 바라보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해체와 재건이다. 과거 일본은 일본-조선-만주의 위계적 구도하에서 제국의 중심으로부터 주변부를 힘으로 흡인하여 내부의 경계를 무너뜨렸다.¹¹⁸⁾ 이는 일본을 정점으로 고전적인 중심부로, 조선은 반주변부로, 만주는 주변부라는 관계로 보면서 세계체제론적인 관점에서 동아시아를 세계체제에서 탈퇴한 자급자족(autarky) 체계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석정이 강조하였듯이, 조선과 만주의 위계질서는 양자간의 산업구성, 교역품, 무역수지, 이민의 방향, 만주국 내부의 위계질서 등으로 보았을 때 성립하기 어렵다.¹¹⁹⁾ 즉, 중심부와 주변부를 고정화하여 역사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변경 지역 확대 과정을 연구한 프레드릭 터너(Frederic Turner)는

118) 한석정, 2003, 「지역체제의 허실: 1930년대 조선과 만주의 관계」, 『한국사학회』 37(5), 55쪽.

119) 한석정, 2003, 위역글, 75쪽.

미국은 전통적으로 설명하는 중앙과 변경의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¹²⁰⁾ 미국의 영토는 부단하게 변경을 확대(the existence of a moving frontier)¹²¹⁾하면서 오히려 탈중심화 과정으로 진척되었다. 즉, 서진을 통해 변경이 확대되면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였고, '중앙'중심이 아니라 '변경'의 확대가 미국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제국 권력의 중심을 만들지 않고 고정적인 강역이나 변경에 의존하지 않으며 하나의 중심이 없는 경계없는 개방성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토마스 바필드(Thomas J. Barfield)의 '상호 중심론(mutual center theory)'¹²²⁾도 중심과 주변의 해체와 재건을 고려하는데 활용성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자국)을 중심으로 나머지를 주변화 혹은 변경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체적화하는 데는 주변부 혹은 변경으로 부터의 역사 인식, 즉 만주를 둘러싼 한반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지역에서 본 만주의 이해가 필요하다. 더불어 만주에서 본 중국, 한반도, 일본, 러시아 등의 역사 이해도 필요하다. 여기에서 시대적 변화와 정체성을 고려한다면 만주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가능하지 않을까?¹²³⁾ 다양성과 융합의 소통을 통해 다원화되고 다층위적인 만주 이해가 절실하다.

만주라는 공간에서 역사적으로 '만보산사건'을 통해 경험해 본 바와 같이 민족의 공존과 역사의 공존은 일방을 다른 일방이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해야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¹²⁴⁾ 일방적인 복종과 갈등, 병렬적인 한중일 연대의 딜레마를 넘어 공존공영의 지혜를 어떻게 터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다.

결국 다민족과 다문화가 공존하면서 갈등은 반감시키고 평화로운 공존의

120) F. J. Turner, 1893, "The Significance of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 Wisconsin Historical Society, <http://nationalhumanitiescenter.org/pds/gilded/empire/text1/turner.pdf>

121) F. J. Turner, 1893, 앞의글, p. 8.

122) 崔燕萍, 2014, 「托马斯巴菲尔德的中国边疆理论思想探析」, 新疆大学学位论文.

123) 임성모, 2007, 「주변의 시선으로 본 동아시아사」, 『역사비평』 79.

124) Sunyoung Park, 2016, "Manchuria: An Imagined Space for Emancipation, Conflict, and Reconciliation," Mikyoung Kim, *Routledge Handbook of Memory and Reconciliation in East Asia*, Routledge, pp.240~257.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주류와 비주류, 주체와 객체, 기득권과 소외자, 다수와 소수, 자아와 타자, 권력과 복종 등의 이분법적 구분으로 서로를 개체화시킬 것이 아니라 상호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상호 타민족,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만주에 대한 기억이 정치적 기억이자 냉전의 틀¹²⁵⁾에서 벗어날 때 미래의 가능성으로 새롭게 형성될 수 있듯이¹²⁶⁾ 시대적 경험으로 만주의 특성을 제한하지 않는 것도 열린 가능성을 만드는 길이지 않을까?

125) 신주백, 2005, 「만주와 해방후의 기억」, 『만주연구』 2; 최봉룡, 2005, 「기억과 해석의 의미 : '만주국' 과 조선족」, 『만주연구』 2; 박선영, 2005, 「기억·만주성위·만주국 : 만주성위 기억과 기록의 합주곡으로 본 만주국 생김새」, 『만주연구』 3; 蘭信三, 2010, 「日本人滿洲移民の生きられた世界 : その記憶と経験」, 『만주연구』 10.

126) 임성모, 2010, 「전후 일본의 만주 기억, 그 배후와 회로」, 『일본비평』 2.

참고문헌

- 강성봉, 2009, 「1930-1940년 중국 지식인의 동북지역사 인식: 푸쓰넨과 진위푸를 중심으로」, 조인성 외,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공봉진, 2013, 「중국 만주족(滿洲族)의 민족문화회복과 중화민족화(中華民族化)에 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34
- 김경일 외, 2004,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 김려실, 2004, 「인터/내셔널리즘과 만주」, 『상허학보』 13
- 김선민, 2011, 「'신청사'의 등장과 분기」, 『내일을 여는 역사』 45
- _____, 2012, 「滿鮮史, 滿學, 그리고 滿洲學」, 『명청사연구』 38
- 김지환, 2008, 「만철과 동북교통위원회」, 『중국근현대사연구』 40
- _____, 2013, 「安奉鐵道 改築과 중일협상」, 『중국근현대사연구』 59
- _____, 2013, 「中國 東北地域 상품유통망의 변화와 東清鐵道の 매각」, 『역사학보』 217
- _____, 2014, 「중국 동북지역 외자기업의 설립 배경과 경영: 1920년대 滿洲紡績株式會社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40
- _____, 2014, 「拉濱鐵道 부설과 중국 동북지역 물류유통의 변화」, 『중국근현대사연구』 63
- _____, 2015, 「만주 간선철도망 형성의 역사적 회고」, 『만주연구』 20
- _____, 2015, 「南通大生企業과 중국 동북시장: 일차대전 종전 후 大生紗廠의 대일 차관 교섭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33
- _____, 2015, 「중국 동북지역 중일자본 기업의 경영 비교: 奉天紡紗廠과 滿洲紡績株式會社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65
- _____, 2016, 「만주국의 중국동북해관 접수와 동북시장의 변화」, 『만주연구』 22
- 김창규, 2007, 「溥斯年の 민족문제 이해와 '東北' 인식」, 『역사학보』 193
- 김창수, 2018, 「조선·청 외교문서의 교섭경로와 성격의 역할」, 『역사와현실』 107
- 김창호, 2007, 「만주라는 하나의 공간과 한중 두 민족의 마주보기: 한국과 중국 동북 현대문학에 투영된 '타자' 형상 비교」, 『만주연구』 7
- 김한규, 2004,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 _____, 2008, 「『요동사』」, 『한국사 시민강좌』 42
- 김현숙, 2015, 「金毓黻의 廣開土王碑 연구에 나타난 고구려사 인식 변화」, 『고구려 발해연구』 51
- 김형중, 2016, 「최근의 명청대 한-중관계사 연구와 '신청사': 연구동향의 분석과 전망」, 『동북아역사논총』 53

- 김희신, 2013, 「만주국 수립 이전 봉천의 상업과 중국 상인의 동향」, 『중국근현대사연구』 60
- _____, 2014, 「중국 동북지역의 상업자본과 상점 네트워크」, 『중국근현대사연구』 62
- _____, 2014, 「중국동북지역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관행」, 『중앙사론』 40
- 조인성 등, 2009,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10, 『제국의 지리학, 만주라는 경계』, 동국대학교 출판부
- 마크 엘리엇, 이훈 역, 2009,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 박경석, 2013, 「清末民國時期 奉天商人團體의 概況과 ‘複合構造」」, 『중국근현대사연구』 58
- _____, 2014, 「근대시기 중국동북지역 민간신앙의 ‘복합성」」, 『중앙사론』 40
- _____, 2014, 「민국시기 동북지역의 민간종교결사와 지방당국의 대응」, 『중앙사론』 39
- _____, 2015, 「清末民國時期 地方祀典의 지속과 변용」, 『중국근현대사연구』 65
- 박선영, 1999, 「만주성위의 고뇌」,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_____, 1999, 「만주성위 해체를 통해 본 중공과 코민테른」, 『동양사학연구』 66
- _____, 2004, 「정체성 게임시대의 중국과의 역사전쟁」, 『역사학보』 182
- _____, 2004, 「중국의 국가주권과 통일의 기억 만들기: 동북프로젝트의 거시적 합의」, 『중국근현대사연구』 24
- _____, 2005, 「기억·만주성위·만주국: 만주성위 기억과 기록의 합주곡으로 본 만주국 생김새」, 『만주연구』 3
- _____, 2008, 「중화인민공화국의 만주족의 역사적 정체성: 팔기제도 관련 연구를 통해 본 만주족의 역사적 정체성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인식」, 『동북공정과 한국학계의 대응논리』, 여유당
- _____, 역, 2013, 『만주란 무엇이었는가』, 소명출판
- _____, 2015, 「창과 방패의 딜레마: 1929년 제3회 IPR회의의 만주 논쟁」, 『중국사연구』 98
- _____, 2016, 「아시아-태평양학의 형성과 발전: IPR과 지역학의 연계성」, 『중국사연구』 104
- _____, 2016, 「주권 회복을 위한 중국 민간의 노력: 1929년 IPR회의의 치외법권 철폐 논쟁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71
- _____, 2018, 『글로벌 만주』, 한울 아카데미
- 박양신, 2016, 「식민정착학의 신지평과 만주문제 인식: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21
- 박영준, 2004, 「러일전쟁 직후 일본 해군의 국가구상과 군사전략론: 사토 테츠타

- 로(佐藤鐵太郎), 『帝國國防史論』(1908)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1)
- 박장배, 2016, 「19세기 한-중 교통로와 중간 핵심거점 심양의 역할 변화」, 『만주연구』 22
- 박찬홍, 2014, 「『만선사』에서의 고대 만주 역사에 대한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76
- 박창희, 2010, 「동북아의 "지전략적 핵심공간"과 근대 일본의 현상도전: 공격방어이론의 "지리" 요인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3(2)
- 백준기 등, 2007, 『아시아의 발칸, 만주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 서머벨, D.C 편, 박광순 역, 1992, 『(A.J.토인비의)역사의 연구』, 범우사
- 송규진, 2009, 「일제하 '선만관계'와 '선만일여론」, 『한국사연구』 146
- 신주백, 2005, 「만주와 해방후의 기억」, 『만주연구』 2
- 심재훈, 2017, 「『요동사』와 그 이후: 참여자와 관찰자의 시각」, 『역사학보』 234
- 안치영·허혜운, 2014, 「중국 동북지역 연구 자료 : 청대와 민국시기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18
- 오기승, 2018, 「원대 요동 여원(麗元) 접경에서의 요양행성 역할 고찰」, 『역사와 현실』 107
- 위가야·이정빈, 2013, 「만선사의 비판적 재인식을 통한 동북아시아사 구상」, 『만주연구』 16
- 유지원, 2011, 「『이민과 개발: 한중일 3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 윤영미, 2005,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배경과 과정 및 개발정책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5-2
- 윤영인, 2006, 「만주족의 정체성과 청대사연구」, 『만주연구』 5
- 윤 욱, 2015, 「新淸史와 앞으로의 과제」, 『역사와 세계』 47
- 윤희탁, 2003, 「현대 중국의 변강-민족인식과 「동북공정」」, 『역사비평』 65
- _____, 2004, 「現代中國의 歷史認識과 '滿洲'觀」,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_____, 2005, 「中國의 「東北工程」과 韓半島: '방어적 전략'인가, '공세적 전략'인가?」, 『만주연구』 2
- _____, 2007, 「중국의 동북 문화강역 인식 고찰: "장백산문화론"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55
- _____, 2012, 「유태인의 만주 이산과 삶」, 『중국근현대사연구』 54
- _____, 2015, 「중국의 '백두산의 중국화' 전략」, 『동북아역사논총』 48
- _____, 2018, 「중국의 '백두산공정': '長白山文化建設工程'에 관한 試論」, 『중국근현대사연구』 78

- 이규철, 2018, 「15세기 초반 조선과 명의 정보교류와 요동(遼東)」, 『역사와현실』 107
- 李基東 譯, 1983, 「'滿鮮史'의 虛想」, 『日本人의 韓國觀』, 一潮閣
- 이동진, 2012, 「만주국의 조선인: 디아스포라와 식민 사이」, 『만주연구』 13
- 이명중, 2015, 「1910·1920년대 조선 지식인들의 '만주=단군강역' 담론」, 『한국근현대사연구』 74
- _____, 2018, 『근대 한국인의 만주 인식』, 한양대학교 출판부
- 이진아, 2018, 「한국인에게 만주는 무엇이었는데가」, 『만주연구』 25
- 이시바시 다카오, 2009, 「대청제국 1616~1799: 100만의 만주족은 어떻게 1억의 한족을 지배했을까」, 휴머니스트
- 이유진, 2014, 「20세기 전만 중국의 '동북' 역사기획 속에서의 주몽서사: 푸쓰넨의 「동북사강」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論集』 85
- 임성모, 2007, 「주변의 시선으로 본 동아시아사」, 『역사비평』 79
- _____, 2009, 「중일전쟁 전야 만주국·조선 관계사의 소묘: '日滿一體'와 '鮮滿一如'의 갈등」, 『역사학보』 201
- 장은주, 2011, 「위폐의 만주 정책과 영-일의 대응(1896-1902): 철도 건설을 둘러싼 열강의 이해대립을 중심으로」, 『서양사학연구』 24
- 전인갑·장정아, 2010, 「중국 관행 연구와 중국 연구의 재구성」, 『중국근현대사연구』 48
- 정동훈, 2018, 「한중관계에서의 요동」, 『역사와현실』 107
- _____, 2018, 「고려-거란 관계에서 세 층위의 소통 구조」, 『역사와현실』 107
- 정경희, 2018, 「중국 '요하문명론'의 '장백산문화론'으로의 확대와 백두산의 '선도(仙道) 제천(祭天) 전통」, 『선도문화』 24
- 정안기, 2011, 「1936년 鮮滿 首腦의 '圖們 회담'과 '鮮滿一如」, 『만주연구』 12
- 정혜중 외, 2008,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조명철, 2004, 「러일전쟁기 일본 육군의 만주전략」, 『군사』 51
- 최봉룡, 2005, 「기억과 해석의 의미: '만주국'과 조선족」, 『만주연구』 2
- 파멜라 크로슬리, 양희웅 역, 2013, 「만주족의 역사: 변방의 민족에서 청 제국의 건설자가 되다」, 돌베개
- 타키자와 노리오키, 2003, 「이나바 이와키치와 '滿鮮史」, 『한일관계사연구』 19
- 토인비, 아놀드 조셉 저, 최혁승 역, 1991, 『토인비와의 대화』 1권, 범우사
- 파멜라 크로슬리, 2010, 「'신' 청사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시각과 최근동향』, 동북아역사재단
- 한석정, 2003, 「지역체계의 허실: 1930년대 조선과 만주의 관계」, 『한국사회학』 37(5)
- _____, 2004, 「동북공정 논쟁 그리고 만주의 기억」, 『문화과학』 40

- _____, 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 _____, 2010, 「박정희, 혹은 만주국판 하이 모더니즘의 확산」, 『일본비평』 3
- _____, 2011, 「서문」, 『동북아역사논총』 31
- _____, 2012, 「만주국: 60년대 한국, 불도저 국가의 흐름」, 『만주연구』 13
- _____, 2016, 『만주모던: 60년대 한국 개발체제의 기원』, 문학과 지성사
- 허혜윤, 2009, 「청사공정의 배경과 현황」, 『중국근현대사연구』 42
- _____, 2013, 「清代 동북지역의 旗地 매매와 분쟁」, 『중앙사론』 37
- _____, 2017, 「이주와 개간: 청대 '京旗屯墾' 정책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46
- 홍성구, 2010, 「만주 역사를 바라보는 한국적 시각의 한 모색: 許穆과 丁若鏞의 만주 諸種族 인식을 端緒로」, 『역사와 담론』 55

- “The Problems of Manchuria,” J. B. Condliffe, eds., *Problems of the Pacific 1929, 1969*, originally published in 1930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irst Greenwood press reprinting, New York
- Chavanne, Jonathan Blackshear, 2017, “Collision in Manchuria: rescue, intelligence, and the Cold War in Asia, August–September 1945,” *Intelligence & National Security* Jan, Vol. 32 Issue 1.
- Dr. Toynbee, 1930, “writes on Dairen and Port Arthur,” *Dairen*, March 12, No. 116.
- Donald G. Gillin and Ramon H. Myers, 1989, *Last Chance in Manchuria: The Diary of Chang Kia-NGau*, Hoover Institution Press, Stanford University, Sanford, California
- F. J. Turner, 1893, “The Significance of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 Wisconsin Historical Society, <http://nationalhumanitiescenter.org/pds/gilded/empire/text1/turner.pdf>
- G. E. Sokolsky, 1929, *The Tinderbox of Asia*, Doubleday, Doran & company, inc., 1932; Yosuke Matsuoka, *An Address on Manchuria Its Past and Present*, Third Biennial Conferenc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 Hsu Chia Yin, 2006, “The Chinese Eastern Railroad and the making of Russian imperial orders in the Far East,” Dissertation of New York University
- Joanna Waley-Cohen, 2004, “The New Qing History,” *Radical History Review*, Vol. 88, winter.
- Mao, Liping & Ma, Zhao, 2012, “Writing History in the Digital Age: The New Qing History Project and the Digitization of Qing Archives,”

History Compass, Vol. 10 Issue. 5

- Owen Lattimore, 1933, *Manchuria: Cradle of Conflict*, The Macmillan Company, New York, 1932; Colonel P. T. Etherton, *Manchuria: The Cockpit of Asia*, The Mayflower Press, Plymouth, William Brendon & Son, Ltd
- Prepared by Joseph Barnes, American Council,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The Manchurian Conflict," Pacific Relations, Box 134, Manchuria-Fugitive Material, Columbia University Libraries Manuscript Collections.
- Rawski Evelyn S., 1998, *The Last Emperors: A social History of the Qing Imperial Institution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uth W. Dunnell and James A. Millward, 2004, "Introduction," James A. Millward et al. eds., *New Qing Imperial History*, New York: Routledge
- Schmid, Andre, 1997, "Rediscovering Manchuria: Sin Ch'aeho and the politics of territorial history in Korea," *Journal of Asian Studies*, Feb, Vol. 56 Issue 1.
- Sergienko, Vera: Aurilene, Elena, 2008, "The Legal Status of Russians in Manchuria (the 1920s)," *Far Eastern Affairs*, Vol. 36 Issue 1.
- Shao Dan, 2011, *Remote Homeland, Recovered Borderland: Manchus, Manchoukuo, and Manchuria, 1907-1985*,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 Shaw, May-yi, 2010, "Wartime diaspora: The reworking of cultural and national identity among Chinese and Japanese writers in 1930s and 1940s wartime China," Dissertation of Harvard University
- Sherwood Eddy, 1932, *The World's Danger Zone*, New York: Ferris Printing Company
- Steven I. Levine, 1987, *Anvil of Victory: The Communist Revolution in Manchuria, 1945-1948*,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tephan, John J, 1997, "Hijacked by Utopia: American Nikkei in Manchuria," *Amerasia Journal*. Vol. 23 Issue 3
- Jin-kyung Park, 2017, "Interrogating the 'population problem' fo the non-western empire: Japanese colonialism, The Koean Peninsula and the global geopolitics of race," *Intervent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ostcolonial Studies*. Nov, Vol. 19 Issue 8.

- Sugiyama Tomoko, 2003, "From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international conflict: Statesmen, soldiers, and political coalition for Japan's national security in 1930-1933," Dissertation of Columbia University
- Sunyoung Park, 2016, "Manchuria: An Imagined Space for Emancipation, Conflict, and Reconciliation," Mikyoung Kim, *Routledge Handbook of Memory and Reconciliation in East Asia*, Routledge
- Zhao Ma, 2008, "Research Trends in Asia: 'Writing History during a prosperous Age': The New Qing History Project," *Late Imperial China*, Vol. 29 Issue 1
- 「东北工程简介」http://bjs.cssn.cn/zdxm/zdxm_dbgc/dbgc_gcjj/(2018년 10월 31일 검색)
- 「周恩來接見朝鮮最高人民會議代表團談話記錄」, 1962年6月28日, 中國外交部檔案館, 109-03158-01
- 張慶峰, 1995, 「毛澤東與東北解放戰爭」, 『中國現代史』, 1995-2
- 劉金質, 楊淮生 主編, 1994,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1(1949-1952),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太平洋討論會中國支部黑幕重重」, 1929, 『益世報』, 12. 4
- 金哲洙, 2003, 「開展東北邊疆問題研究的幾個問題」, 『中國東北邊疆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武尙權, 1944, 『東北地理與民族生存之關係』(東北叢書 第1種), 重慶: 獨立出版社
- 蘇上達·祁仍奚 編, 1930, 『第三屆太平洋國交討論會紀要』; 瀋雲龍 主編編, 1978, 『近代中国史料叢刊續編』第50輯, 台北: 文海出版社
- 王金鈺·陳瑞云 主編, 1988, 『中國現代史詞典』,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 王德溥, 1957, 「東北問題的再檢討」王大任主編, 『東北研究論集』1,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 王洛林, 2003, 「加強東北邊疆研究, 促進學科建設」, 『中國東北邊疆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王水, 2006, 「哈爾濱猶太人社區的建立及基本狀況」□『黑龍江社會科學』第6期
- 于斌, 1957, 「東北與世界大戰問題」王大任主編, 『東北研究論集』1,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 魏宏運, 1999, 『民國史紀事本末』7, 遼寧人民出版社
- 劉爽, 2006, 「哈爾濱猶太人歷史活動分期」, 『學習與探索』第3期
- 张晓刚, 段凡, 2019, 「战后日本学术界关于“满洲移民”问题的研究管窥」, 『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5
- 蔣中正, 1974, 『蘇俄在中國: 中國與俄共30年經歷紀要』, 臺北, 中央文物供應社, 1956 초

판, 1974 27판

- 张婷, 2011, 「漫谈美国新清史研究」, 『满学论丛』
- 程紅澤, 2007, 「蘇俄國內戰爭時期猶太人對外遷徙述略」, 『西伯利亞研究』 第34卷 第1期
- 趙暹文, 1981, 「旅京東北人士致魏德邁特使備忘錄」, 『東北文獻』 12-2
- 钟焄, 2016, 「学术与政治的交集：简析“新清史”学者的意识形态倾向(上)」, 『中国民族报』, 2016.1.15.
- 钟焄, 2016, 「学术与政治的交集：简析“新清史”学者的意识形态倾向(下)」, 『中国民族报』, 2016.1.22.
- 陳孝威, 1964, 『爲什麼失去大陸』, 臺北: 文海出版
- 焦润明, 2014, 「傅斯年与东北史研究」, 『东北史地』, 2014-11
- _____, 2015, 「傅斯年“东北是亡不了的”思想探析」, 『社会科学战线』, 2015-7.
- 崔燕萍, 2014, 「托马斯巴菲尔德的中国边疆理论思想探析」, 新疆大学学位论文
- 佟冬 主編, 1998, 『中國東北史』 6卷,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 マーク・エイオット(Mark C. Elliott), 2008, 「ヨーロッパ、米國における滿洲學：過去・現在・未來」, 『東洋文化研究』 10
- ヤン・スエレッキ, 2006, 「ユダヤ白系ロシア人にとっての滿洲」, 藤原書店編輯部 編, 『滿洲とは何だったのか』(新裝版), 藤原書店
- 旗田巍, 1964, 「滿鮮史の虚想：日本の東洋史家の朝鮮觀」, 『鈴木俊教授還曆記念東洋史論叢』
- 稻葉岩吉, 1907, 「韓半島の保障と遼東半島」(上・下), 『東洋時報』 105
- _____, 1922, 「滿鮮不可分の史的察」, 『東洋』 25-5, 東洋協會
- 蘭信三, 2010, 「日本人滿洲移民の生きられた世界：その記憶と経験」, 『만주연구』 10
- 滿洲國史編纂委員會編, 1971, 『滿洲國史 各論』, 滿蒙同胞援助會
- _____, 1971, 『滿洲國史 總論』, 滿蒙同胞援助會
- 滿洲事情案内所編, 1938, 『滿洲國の現住民族』, 滿洲事情案内所
- 白鳥庫吉, 1907, 「歷史上た於ける滿洲の地位」, 『斯民』 2-1
- 山中峰央, 2010, 「「滿洲国」の人口推計と民族構成」, 『만주연구』 10
- 松村史紀, 2012, 「滿洲國崩壊後の東アジア：二つの中ソ同盟からの考察」, 『만주연구』 13
- 亜伊松沢, 2007, 「「滿鮮史觀」の再検討：「滿鮮歴史地理調査部」と稻葉岩吉を中心として」, 『現代社会文化研究』 39
- 朝鮮及滿洲社, 1912-1941, 『朝鮮及滿洲』, 朝鮮及滿洲社

투고일: 2019년 3월 16일, 심사완료일: 2019년 4월 19일, 게재확정일: 2019년 4월 19일

■ Abstract ■

Manchuria Interpreted

: Meaning of Manchuria from Studies of East Asia History

Park, Sunyoung (Sejong University)

The Manchuria's multifaceted perceptions link to probes into the how and why of the country. At times, this invariably tags the country to Chinese history at times, to its role within broader East Asian historical contexts at others, and to efforts to isolate and unearth Manchuria to a discernible history from within the country itself. Without question, Manchuria's imagined forms are wide-ranging and distinctly varied from traditional age to the present. However, even within its varied pasts, patterns of interpretation create a general design outlined in characteristic periods throughout Manchuria history. This paper analyzes interpretations of Manchuria as presented in the discourse on new Qing history. It examines interpretations of Manchuria not only in terms of its significance as a nation and a national space, or as the hub of influence under the East Asian umbrella—where nations disperse and integrate their own histories and where Manchuria merely serves a nexus of East Asian change—but also as a “customary ” of Manchuria.

Key words: Manchuria, disperse and integration, customary, Asia's Balkan, center of equilibrium

www.kci.go.kr